



## 정보

### ◎ 2009년도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및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실시 안내

#### 1. 신규교육

구분	교육과정명	일정	주관	인원	시간	장소/기타
직무교육 및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산업보건관리	6.15-19	중앙회	50	34H	병원간호사회 2층 교육장
		8.31-9.4	중앙회	50	34H	병원간호사회 2층 교육장
		11.9-13	중앙회	50	34H	병원간호사회 2층 교육장

#### 2. 보수교육

구분	교육과정명	일정	주관	인원	시간	장소/기타
직무교육 및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근로자 정신건강증진	5.19-21	중앙회	50	24H	병원간호사회 2층 교육장
		6.24-26	중앙회	50	24H	병원간호사회 2층 교육장
		6.30-7.2	부산	50	24H	부산대학교 강당
		7.21-23	중앙회	50	24H	병원간호사회 2층 교육장
		9.15-17	중앙회	50	24H	병원간호사회 2층 교육장

\* 모든 교육과정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입니다.

## 중앙회 소식

### ◎ 창립 15주년 기념행사 및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개최

생명이 약동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2009. 5. 27(수) ~ 28(목) 1박 2일안면도 롯데 오션캐슬머큐리홀에서 창립 15주년 기념행사 및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이 개최되었다.

이날 노동부 김윤배 대전지방노동청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화중 증경회장(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산업간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협회 창립 15주년, 어느덧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아 기념행사는 산업안전보건의 도약을 위한 각오를 새로이 하고, 회원간의 결속과 협회의 도약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로 임원 및 백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또한 의료인 면허보수교육이 “근로자 상담능력 개발”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금연 프로그램 운영 전략 및 민간단체 산재예방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각 지부별 분임토의를 실시하였다.

### 지부별 월례교육 현황

지부	지회	내용
서울	서울	일 자 : 2009. 6. 25(목) 장 소 : 서울대 간호대 주 제 : 물질관련 장애(가제)
경기	안산	일 시 : 2009. 6. 24(수) 16:00 ~ 18:00 장 소 : 한도병원 주 제 : 여름철 건강관리
	안양	일 시 : 2009. 6. 24 (수) 장 소 : 안양샘병원 주 제 : 정신 건강관리 강 사 :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김현진
	성남	일 시 : 2009. 4. 15(수) 17:00 ~ 18:00 장 소 : 임플러스 치과 주 제 : 치과질환 치료와 임플란트 강 사 : 임플러스 치과 박정호 원장
인천	인천	일 자 : 2009. 5. 21(목) 장 소 : 인천상공회의소 회의실 8층 주 제 : 2009년 변경된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및 결과 판정기준 참 석 : 17명
		일 자 : 2009. 5. 27 ~ 5. 28 장 소 : 안면도 롯데 오션캐슬 머큐리홀 주 제 : 근로자 상담능력개발 참 석 : 3명
대전·충청	대전	일 자 : 2009. 5. 22. 장 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주 제 : 산업보건네트워크 참 석 : 22명
		일 자 : 2009. 5. 27. 장 소 : 갤러리아 타임월드 로데오광장 공동캠페인 : 근로자의 건강, 산업간호사의 손길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질환 예방 참 석 : 산간협 5명, 대전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개구 보건소
		일 자 : 2009. 06. 12. 장 소 : 대한간호협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강당 주 제 : 보건관리자와 함께하는 산업보건정책설명 및 의사소통기술 참 석 : 60명

지부	지회	내용
광주·전남북	광주	일 자 : 2009. 5.15 (금) 장 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 제 : 09년 산업간호동향 정보교류회
		일 자 : 2009. 6. 9(화) 장 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 제 : 산재처리실무교육
		일 자 : 2009. 6. 16(화) 장 소 : 중소기업종합센터 주 제 : 직장 금연지도자 과정
	전북	일 자 : 2009. 4. 28(화) 장 소 : 씬플라워 컨벤션센터(4층) 주 제 : 전북지역 산업보건활동 활성화 워크숍 참 석 : 43명
		일 자 : 2009. 6. 4(목) 장 소 : 씬플라워 컨벤션센터(4층) 주 제 : 전북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능력 향상 아카데미 참 석 : 51명
	여수	일 자 : 2009. 06. 18(목) 10:00 ~ 14:00 장 소 : LG화학 여수공장 연수원 주 제 :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한 노동부 정책방향
대구·경북	대구	일 자 : 2009. 5. 3(일) 장 소 : 대구 스타디움 경기장 주 제 : 09년 민간단체 산재예방사업 -지역사회근로자와 함께하는 뇌심혈관질환예방활동 등 참 석 : 15명
		일 자 : 2009. 5. 20(수) 장 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교육장 주 제 : 보건관리자 직무향상을 위한 워크샵 참 석 : 14명
부산·경남	부산	일 자 : 2009. 6. 30 ~ 7. 2 장 소 : BTC아카데미 주 제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참 석 : 50명(예정)
	부산 양산	일 자 : 2009. 6. 11(목) 13:00 ~ 18:00 장 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정보센터 대강의실 주 제 : 1. 직장인의 효율적인 웰빙건강관리 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테이핑요법 이론 및 실습 3. 사업장 테이핑 사용 사례발표 참 석 : 20명(예정)
	경남	일 자 : 2009. 4. 16(목) 장 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층 대강당 주 제 : 1. 대사증후군 관리 2. 고혈압관리 3. 이상지질혈증의 관리 4. 당뇨병의 관리 및 뇌심혈관계 유해요인조사와 관리 참 석 : 45명
		일 자 : 2009. 5. 14(목) 장 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층 대강당 주 제 : 1. 직무스트레스 관리 1 2. 직무스트레스질환의 관리 3. 직무스트레스 관리 2 참 석 : 45명
	울산	일 자 : 2009. 6. 26(금) 14:00 ~ 18:00 장 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 교육장 주 제 : 1.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인간공학적 접근) 2. 요통의 보존적 치료 참 석 : 30명(예정)
	제주	제주

## 한국산업간호학회 소식

### ◎ 학회지 원고 모집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8권 2호(11월 발행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는 본 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지]-[논문투고신청] 메뉴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숙영 출판이사(울지대 간호학과 교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042-259-1717, ksy@eulji.ac.kr

### ◎ 학회 회원가입 안내

학회 가입원서를 학회 홈페이지(<http://www.ksohn.or.kr>)의 학회소식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 혹은 이메일로 아래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 회 장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김영임 교수

전화 : 02-3668-4704, Fax : 02-3668-4704, E-mail : young@kno.ac.kr

총무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01번지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최은숙 교수

전화 : 053-420-4936, Fax : 053-421-2758, E-mail : eschoi2007@knu.ac.kr

평생회비 200,000원(년 2회 분납 가능), 개인연회비 10,000원, 기관연회비(도서관) 100,000원  
예금구좌 : 농협 1165-01-068015 / 예금주 한국산업간호학회

### ◎ 2009년 한국산업간호협회 우수사례 경연대회 안내

한국산업간호협회 우수사례경연대회는 산업간호사의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는 한편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회원들을 격려하고, 2009년 제 42회 산업안전 보건 강조 주간기간을 맞이하여 산업보건환경을 활성화시키고자 “2009년 산업간호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경연대회 일시 : 2009년 7월 8일 (수) 13:00 ~ 17:30
2. 장 소 : COEX 컨퍼런스센터 304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3. 참 가 비 : ① 회원 20,000원 / 비회원 30,000원(교재 및 자료CD 포함)  
우리은행 1005-700-951344 한국산업간호협회  
② 참석예정자는 7월 3일(월)까지 입금 및 신청서를 FAX로 접수 바람.

#### 4. 시상내역

- 대상 1명 : 노동부장관상 및 상금 500,000원
- 금상 1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및 상금 300,000원
- 은상 4명 : 한국산업간호협회장상 및 상금 각 100,000원 (건강증진상, 산재예방상명)

#### 5. 경연대회 프로그램

##### 제 1부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간호 추진 사례

- 직장내 웃음치료의 적용과 스트레스 관리 (문은주 (주) 뉴코아 아울렛 보건관리자)
- 이기적인 몸매 만들기 프로젝트 (이나경 삼성탈레스 용인연구소 보건관리자)
- 직장 내 절주 프로그램 적용 (박용순 와이케이스틸(주) 보건관리자)

##### 제 2부 : 금연프로그램 적용 추진 사례

- 금연프로그램을 적용한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임정미 대구텍(주) 보건관리자)
- 지역사회와 연계한 금연프로그램 적용 (엄미정 서울북부보건안전센터 사업부장)
- Health & Clean DYMOs 만들기 (하지선 다이모스(주) 보건관리자)

##### 제 3부 : 심사평 및 시상

※ 문의 : 한국산업간호협회 사무국 (☎ 02-716-9030,9022)

## 노동계 소식

### ◎ 노동부 7월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운영

- 달라지는 석면제도 집중 교육·홍보와 함께 일제점검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7일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홍보활동과 함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8월 7일부터 시행될 석면제도 변경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할 경우, 작업 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하고,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 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석면농도기준, 0.01개/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오는 7월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운영하는 노동부는 우선 6월 하순부터 근로감독관, 안전공단직원, 지자체 건축 관련 담당자, 석면조사·해체·제거업체, 대형건설업체 등 관련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변경된 석면 제도 소개와 석면취급 요령을 전달하고, 특히 사전 석면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체에 대해서는 법정조사기준 및 해체·제거시 안전작업기준 등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문,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석면 함유여부 사전 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칫 현행 제도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에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노동부 정현욱 산업안전보건국장은 7월 운영될 “석면안전 강조의 달”을 계기로 달라지는 석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석면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고 석면의 피해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석면 노출로 인한 잠복기(10년~30년)를 감안할 때 석면의 유해면지가 바람을 타고 전파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석면재료가 많이 쓰인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허물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문 의 : 근로자건강보호과 이정인 (02-6922-0968)

## ◎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

- 침수·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전국 800여개 현장

노동부는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금년부터는 5월 중순부터 실시한다.

기존에는 주로 6.1부터~6.30까지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우기가 빨리 시작되거나 급변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점검시기 및 점검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침수·붕괴·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 8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특히, 국토해양,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요청에 따라 5.15~5.21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건설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32-510-0629)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02-3284-1024)로 문의하면 된다.

※ 문 의 : 전보건지도과 정기수 (02-6922-0936)

##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우리 고장 상설 채용관”으로 거듭난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상설 채용관화”되고, 취업지원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동행면접 등 취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의 “상설 채용관 化”의 1단계로서 서울지역 7개센터, 대구·부산·광주·대전·인천북부·순천 등 전국 13개 고용지원센터를 시범센터로 지정하고, 대구센터는 매일, 다른 12개 센터는 매주 수요일 다양한 채용행사가 개최되는 채용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전국고용지원센터의 채용행사계획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6.1일부터 워크넷(www.work.go.kr)에 전용배너가 설치된다.

따라서, 구직자들이 워크넷에서 캘린더 형식의 전국 고용지원센터 월간 채용행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채용행사를 클릭하는 경우 구인업체, 구인직종 및 기업의 제시임금 등 구체적인 구인정보를 알 수 있다.

장외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지원센터가 구직자, 구인기업을 이어주는 “우리 고장 상설채용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취업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면 되는데, 워크넷 초기화면에서 현재 모집중인 대기업, 공기업, 일반기업 등의 채용정보를 알 수 있고, 해당기업 배너 내에 설치되어 있는 ‘채용사이트 바로가기’로 가서 바로 입사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Off-line은 고용지원센터, On-line은 워크넷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일자리를 찾고 인재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태호 (02-6922-0989)

## ◎ 한국타이어 추가 역학조사 발표

- 나노입자 수준의 고무흄 평가 등 작업환경평가 실시
- '07년 이전, 조직문화와 직무특성은 건강관리 행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
- 사업장 내 보건관리체계 강화 권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강성규)이 한국타이어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업환경이 '07년에 비해 개선되어 고무흄의 노출수준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역학조사는 2008년 2월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 종결 당시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추가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실시되었다.

추가 역학조사 항목은, 조직문화 및 직무특성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고무흄에 대한 정밀 작업환경평가로 '08년 10월부터 '09년 3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직문화에 대한 조사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현직 근로자로 구성된 사내그룹과 퇴직 근로자 그룹으로 나눠 심층면담이 실시되었다.

두 그룹은 사내 보건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나 직무특성 및 근로자건강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사내그룹과 퇴직자 그룹이 상이한 의견을 진술했다.

면담결과, 공단 연구원은 한국타이어의 직무특성과 조직문화는 근로자 건강관리 행태 및 보

건관리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체적인 산업보건관리를 하기에 는 역량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고무흙 등에 대한 정밀 작업환경평가에서 고무흙의 노출 농도 수준은 0.086mg/m<sup>3</sup>에서 0.179mg/m<sup>3</sup>로 나타나 영국의 노출기준인 0.6mg/m<sup>3</sup>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고무흙 및 고무분진에 대해 나노입자 수준까지 평가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노입자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고무흙의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독성연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타이어의 정련, 가류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를 측정 한 결과 검출한계 미만이거나 아주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

이번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공단 연구원은 한국타이어에 회사내부 산업보건 전문가 중심의 전담독립부서 구축 및 외부 산업보건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 지식 교류, 근로자 기초 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에 대한 회사차원의 노력, 보건관리자에 대한 산업보건 전문분야 재교육 기회제공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추가 역학조사는 국내 타이어제조업 3사(한국, 금호, 넥센)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3사 모두 역학조사에 이의를 제기해 오다가 '08년 10월에 한국타이어(주)만 역학조사에 협조함으로써 조사가 이루어졌다.

※ 문 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병연구센터 김은아 (032-5100-822)

홍보팀 송재성 (032-5100-532)

## 산업보건계 소식

### ◎ 2009년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 2006-30호, '06.10.23)에 의거 2009년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 2.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특수건강 진단기관 및 신규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 3. 평가 분야 및 실시방법

- 기관평가 : 자료 및 방문평가

- 기관평가는 자료평가가 원칙이며 2회 연속 자료평가만을 받은 대상 기관 및 신규지정 신청의료기관은 방문평가를 신청하여야 함



- 청각검사교육 : 신규 및 보수교육 참여자에 대해 이론·실습과정 실시
- ※ 청력정도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신규과정에 참여하고 청력정도관리교육을 기이수하고 3년이 경과한 자는 보수과정에 참여함
- ※ 1·2차 순음청력검사자의 서명확인에 따라 청각검사교육 미이수자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 청력정도관리 자료 또는 방문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통보됨

#### 4. 실시일정

신청서 접수 마감 : 2009년 6월 26일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접수 : <http://165.246.104.69>)

##### 가. 자료평가

- 자료제출 사업장 안내 : 2009년 7월 3일
- 자료접수 : 2009년 7월 6일 - 31일
- 자료평가 : 2008년 8월 3일 - 10월 9일

##### 나. 방문평가

- 일정안내 : 2008년 7월 3일
- 방문평가 : 2008년 7월 13일 - 10월 9일

##### 다. 청각검사교육

- 신규교육
  - 4차 : 2009년 7월 7일 - 8일
  - 5차 : 2009년 7월 9일 - 10일
  - \* 4, 5차 교육 중 1회만 참석가능하며 신청인원은 기관당 1명으로 제한함
- 보수교육 : 2009년 7월 13일 - 14일
- 교육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층 강학당(세미나실)

#### 5. 참가비: 없음

#### 6.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1 / FAX. (032) 518-0862

#### ◎ 노동부 - 검찰 산업재해 예방 함께 나선다

- 5월 한 달,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석면, 노말렉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4월22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합동점검 지침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범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노동부-검찰합동 점검은 '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문 의 : 산업안전지도과 오만석 (02-6922-0939)

## ◎ 중국인 노동자 'TCE 중독 사망' 산재승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중독으로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가 산재승인을 받았다. 중국인 노동자 가운데 TCE에 의한 산재 인정 첫 사례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비공장에서 일하다 TCE 중독으로 숨진 중국인 조과(사망당시 20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불승인처분 취소청구'를 낸 끝에 산재를 인정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2월부터 정비공장 내 벤딩공정과 세척공정에서 근무하다 같은해 5월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산재인정을 위한 사실관계 증명 등에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대리한 최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산재)는 “TCE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벤젠·노말hexan 등 중독성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며, 특히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영세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CE에 의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은 1년에 100만명당 1~2명에게 발생하는 희소병이다. TCE에 노출된 지 2~3주 뒤에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치료를 하지 않고 TCE에 계속 노출되면 1~2개월 안에 사망할 수 있다.

※ 문 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미디어개발실(032-510-0683)

## 간호계 소식

### ◎ 한일 간호사 인력 노동조건 비교 토론회

#### - 환자 생명 살리며 생명 단축되는 간호사들

“바쁘다. 정원 미달 상태인데도 직원이 꽤 줄었다. 사람이 워낙 부족하니 무리한 요구도 강요받고 말투도 딱딱해진다. 다들 엄청 지쳐 있다. 사람 죽는 일이 안 생기기만을 기도한다.” (과로사로 숨진 한 일본 간호사의 일기)

일본 도쿄 제생회중앙병원에서 근무하던 다카하시 아이(당시 24세)씨. 지난 2006년 4월 이 병원에 입사해 수술실 간호사로 일했던 그는 이듬해 5월 환자이송용 침대 위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날 저녁 그는 치사성부정맥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사망 직전 월 100시간 정도 잔업을 했다”며 산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일본의 미타 노동기준감독서는 과로사를 인정했다. 노동기준감독서는 그의 잔업시간이 과로사 인정기준인 월 80시간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불규칙적인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로 판단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 - 한일 간호사 노동조건 비교 토론회 열려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은 12일, 한국과 일본 간호사의 노동조건을 비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자치단체 노조(JICHIRO)와 일본 보건의료복지노조협의회(JHCWU) 관계자들이 발제에 나섰다. JICHIRO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조로 2천700여 단위노조에 조합원 90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JHCWU에는 8천900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일하다 숨진 두 명의 간호사가 산재로 인정받아 화제가 됐다. 다카하시 아이씨가 숨지기에 앞선 2001년 2월, 무라카미 유코(당시 25세)씨가 간호사가 된 지 4년 만에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공무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후생노동성은 불복했다.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정부측 청구를 기각했고, 정부가 상고를 단념하면서 공무재해로 인정받았다.

마츠이 류노스케 JICHIRO 건강복지국 국장은 ‘일본 간호사 노동과 건강에 관한 긴급 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업무나 직업생활에 대해 불안과 고민·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 75%로 대단히 많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일본의 JICHIRO와 헬스케어노협이 간호사 9천732명의 답변을 분석한 것이다.

#### - 일본 간호사 “잠 좀 자고 싶다”

일본 간호사들은 현재 필요한 시간 1순위로 ‘수면시간’을 꼽았다. 마츠이 국장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는 질문에 자고 싶다고 대답하는 직장이 얼마나 있겠냐”며 “간호사 자신의 생명을 줄이면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면시간 다음으로는 △식사시간 △육아시간 △친구·애인과의 교체시간 △취미시간 등을 꼽았다.

최근 일본에서는 하루 16시간을 근무하는 2교대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 간호사들은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업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간호직장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 증가'라는 답변이 30%로 가장 많았다.

#### - 노동강도 심화시키는 인력부족

간호사 인력부족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건의료노조가 3~4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부서 인력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66.5%에 달했다. 업무 때문에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73.7%였고, 절반 정도는 인력이 부족해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호 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최신 수술로봇을 포함해 세계 의료장비의 절반이 아시아에 있고, 아시아 의료장비의 절반이 한국에 있다"며 "그럼에도 보건의료인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수준이라는 것은 정부 인력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평균 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OECD의 경우 전체 고용인구 중 6.12%다. 반면에 한국은 3.1%에 불과했다.

간호사 출신이기도 한 마츠이 국장은 "일본에서는 여전히 초등학교생들이 커서 되고 싶은 직업 상위 5위에 간호사가 꼭 들어간다"며 "백의의 천사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노동조건이 개선된 직장을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 - 죽을 만큼 아파도 출근해라?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목 말라도 물 안 마셔요. 생리할 때는 죽을 맛이죠."

"임신 중절 수술하고 바로 나와 일한 적도 있어요. 죽을 만큼 아파도 일단 출근은 하라는 거죠."

"신규간호사랑 둘만 야간근무를 할 때는 '환자가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각오로 근무해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병원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라도 결근하면 바로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동료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공개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장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대부분 열악한 노동조건이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인력이 신규인력 트레이닝을 겸하면서 노동강도가 세져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결국 다시 이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46.7시간으로, 40.7%는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의 병원에서는 4·6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한 명당 4명의 환자를 보고, 밤(나이트) 근무횟수를 한 달에 6개 이하로 낮추자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60년대 '2·8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밤 근무는 최소한 두 명의 노동자가 하고, 밤 근무횟수를 한 달에 8개 이하로 줄이자는 것이다.

노조는 올해 인력확충 관련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기부 구성 △밤 근무 등 교대제 개선, 적정임금 보장, 육아시설 확대 △야간근무수당 인상 △보건의료인력개발법 제정 추진 △간호관리료 위반 처벌조항 신설 등을 제시했다.

## ◎ 간협, 간호사 재취업 프로그램 전국 운영

- 오는 11월까지 전국 8개 지역서 진행 지난해 10명 중 6명 취업... 운영 성과 커

- 지난해에 이어 결혼, 육아 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辛瓊林)는 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호사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3월 12일 밝혔다.
- 이번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재취업을 원하는 간호사 5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이를 지역별로 보면 먼저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간호사회(02-859-6346)가 노동부 지원사업인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사업의 일환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50명씩 1차(4.6~29)와 2차(6.8~7.1)로 나눠 진행한다. 또 서울시의 '엄마가 신났다' 사업 일환인 장롱 자격증 되살리기사업으로 200명을 40명씩 모두 5차례(1차 3.23~4.17, 2차 5.11~6.8, 3차 7.6~8.3, 4차 8.31~9.28, 5차 11.2~30)에 나눠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 대구지역은 대구시간호사회(053-756-8487)가 노동부 지원사업인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60명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한다.
  - 대전지역은 건양대(042-600-6340)와 대전시간호사회(042-535-0739)가 노동부의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사업의 일환으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진행한다.
  - 울산지역은 춘해보건대학(052-270-0461)과 울산간호사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노동부 지원사업인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사업의 일환으로 4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도간호사회(031-252-0351)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취업과정의 일환으로 30명을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한다.
  - 충북지역은 충청북도간호사회(043-272-1573)가 노동부의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사업의 일환으로 4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한다.
  - 경북지역은 경상북도간호사회(053-743-2721)가 노동부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한다.
  - 경남지역은 마산대학(055-230-1428, 055-230-1176)과 경남간호사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노동부의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사업의 일환으로 4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한다.
-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급격한 의료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 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면서 "결혼, 육아 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간호사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소병원 인력부족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대한간호협회는 서울을 비롯해 모두 14개 지역 20개 기관에서 재취업을 원하는 간호사 1152명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이 가운데 교육 직후 49.2%인 569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지금까지의 취업률은 60%에 달해 프로그램 운영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의료계 소식

### ◎ '존엄사 자기결정권 강화' 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사망의 과정에 진입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기준·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당병원인 세브란스는 '인공호흡이 필요한 식물인간상태 환자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시 가족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환자 연명치료 중단 3단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

서울대병원에서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병원의료윤리위원회를 거쳐 말기 암 환자의 심폐소생술·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공식 통과시켰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문이 있다. 그것은 '자기결정권에 강화'다.

존엄사와 관련해 허용측의 주장은 인간의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와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해왔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존엄사법안도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의사결정서는 생명연장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환자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능력이 있는 동안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해 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의료에 대해 미리 작성해 대리인을 지정해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호흡유지장치 등에 의해 생명만 연장되는 것을 본인이 거부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겠다는 것은 분명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종교·윤리적 관점 등에서 봤을 때 인간의 삶과 죽음은 '신'에 의해 또한 자연의 섭리에 따른 것이 근본적인 전제로 아무리 자신의 생명이지만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는 분명 물음표가 생긴다.

즉 인간생명 경시풍조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존엄사 인정을 계기로 법률에 기반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되게 됐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의 죽음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법제화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 난관이 예상됨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할 인간의 죽음이기에 각 사례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과 해석이 등장한다. 이에 따라 각 사례에 똑같이 적용할 순 없어도 기본적인 기준·근거마련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우리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숙제가 됐다.

숙제를 풀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또 하나 더 있다.

환자가 경제적인 부담에 이끌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선택을 자의반 타의반 강요받아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 차원에서 환자가 선택의 강요를 받지 않게끔하는 진료비 지원 등의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